

우크라이나의 맑스-레닌주의 조직 '보르트바'에 관해

스푸트니크



https://www.reddit.com/r/communism/comments/x4y2sb/in_memory_of_ukrainian_communist_evgeny_golyshkin/

공산주의 레딧에서 예브게니 골리쉬킨이라는 우크라이나인 공산주의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보고 이 인물이 소속되었던 '보르트바'라는 조직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다.

골리쉬킨은 우크라이나의 맑스-레닌주의 조직 '보르트바(투쟁)'의 당원이었고 지난 9월 1일 도네츠크 민병대 소속으로 도네츠크 전선에서 싸우다 포탄에 맞아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보르트바는 2011년 우크라이나 공산당, 우크라이나 콤포솔, 우크라이나 마르크스주의자 조직, 전우크라이나 노동조합 등 여러 좌익 조직 출신의 말레들이 세운 조직으로, 맑스-레닌주의와 반파시즘을 표방했다. 또한 독일 좌파당, 러시아 좌익전선(반푸틴, 반러공 성향)과 제휴했다.

마이단 쿠데타 이후 보르트바는 마이단 정권을 서방의 지원을 받는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보르트바는 2014년 하리코프, 돈바스, 오데사 등에서 일어난 반마이단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동하고 참여했다. 하리코프에서 친러 시위대와 함께 친마이단 시위대와 충돌하고 지방정부 건물을 점거했으며, 오데사 학살 사건 당시 노동조합 건물에서 사망한 인물들 중 보르트바 당원이 있었다고 한다.

보르트바는 마이단 이후 반마이단, 친러 성향을 띄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외의 좌익 조직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좌공-아나키즘 성향의 조직들은 공동 성명을 내며 보르트바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보르트바가 야누코비치 정권을 옹호하고, 마이단을 과도하게 파시즘으로 낙인 찍으며, 하리코프에서 친푸틴 조직들과 야합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며 맹비난하고, 노동계급을 대표하지 않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으로 규정했다. <http://avtonomia.net/2014/03/03/statement-left-anarchist-organizations-borotba-organization/> 영국의 트로츠키주의, 반스탈린주의 조직 '워커스 리버티'는 보르트바를 "사회주의를 가장한 사기꾼들"이라고 조롱했다. <https://www.workersliberty.org/story/2017-07-26/borotba-charlatanism-masquerading-socialism>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르트바를 테러, 불법 조직으로 규정했고, 정치적 탄압이 이어졌다. 여러 당원들이 SBU에 체포되었고, 주요 간부들이 국외로 망명하면서 크게 쇠퇴했다. 현재도 홈페이지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지하조직으로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ttp://www.borotba.eu/>

한편 현재 보르트바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보르트바 홈페이지에 게시된 "파시즘과 싸우는 것은 모든 품위있는 사람들의 의무다"라는 글에서 그들은 이렇게 호소했다.<http://www.borotba.su/fight-fascism-2022/> "동지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조지아에서 온 나치들, 폴란드와 스웨덴의 극우들, 스페인과 리투아니아에게 훈련받은 적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온 당신들의 적들과 싸우고 있다. 오늘날 인류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이 침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후략)"